

# Portfolio

김민경

Kim Min Gyung

## 작가노트

생주이멸 (生住異滅) : 모든 사물은 생기고, 머물고, 변화하고 소멸하는 네 가지의 모양으로 사물의 무상(無常)함을 나타낸다.

생주이멸(生住異滅)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이는 작품 제작과 전시 구성에 대해 영향을 미친다. 작품을 제작하고 전시를 통해 형상을 유지하다, 전시가 끝나면 다시 해체되는 것처럼 순환의 과정을 담고 있다. 다양한 현상에 대한 이야기를 위해 모였다가 다시 흩어지게 된다. 이러한 변화 과정 속 고정된 것 없이 변화되기 때문에 작품의 시간성과 현장성을 함께 고찰한다.



괴리(乖離) / 가변설치 / Mixed media / 2024

‘Mix·혼’ 광주시립미술관 청년예술인센터



기성품을 이용하여 재조립한 지난 작품에 반하여 작품을 제작하고 싶었다. 잘 사라질 수 있는 물질의 작품을 만들어보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자 개인의 호기심 연구이다. 작품의 원료는 '알긴산나트륨'으로 감태, 미역, 다시마 등의 갈조류로부터 추출한 다당류이다. 친수성이 높은 고분자 전해질로서 물에는 용해되지만 유기용매(고체·기체·액체 등을 녹일 수 있는 액체 유기 화합물 메탄올·벤젠 따위.)에는 용해가 되지 않는다. 고점도의 물성을 응용한 증점제로 많이 사용되고, 나트륨을 칼슘으로 치환시키면 겔을 형성하는 능력으로 이를 이용하여 구형젤리 등 겔화제로 사용하기도 한다.

재료 연구를 진행하며 잘 사라지는 작품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에서 잘 사라지지 않는 것들이 발생하게 된다. 작품을 제작하며 생겨난 쓰레기(잔재)를 보며 회의감을 느꼈고 최대한 낭비하지 않는 방식으로 재사용하려 노력하였다.

이번 작업은 단순히 한 인간으로서 이전의 업보를 조금이나마 상쇄하고자 하는 작은 몸부림이다.



작품 연구 / 가변설치 / Mixed media / 2024

‘Mix·혼’ 광주시립미술관 청년예술인센터 오픈스튜디오



작품 연구 / 가변설치 / Mixed media / 2024  
'Mix·혼' 광주시립미술관 청년예술인센터 오픈스튜디오

연구에 대한 실험 과정 중 다양한 형태의 모양을 기록하였다. ‘괴리(乖離)’ 작품 제작 과정 전반의 조각들을 모아 프로필 형식으로 각각의 이미지를 보여주며 관람객들이 직접 보고 만져 볼 수 있게 실물도 함께 배치하였다. 또한 실험과정을 담은 기록 문서와 작업노트를 함께 제공하여 관람객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이번 작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이전 작업에서 이어진다. 지난 작업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에 대해 기성품을 활용하여 재조립한 형태로 표현했다. 전시가 끝난 후 작업실로 돌아온 작품을 바라 보며 많은 고민을 하였다. 이 작품의 가치와 앞으로의 작업에 대해서 고민하였다. 알루미늄 막대 16개와 하얀 인조 털뭉치 그리고 전선과 흙 과연 앞으로 이 작품을 다시 전시 할 수 있을지 전시하지 못한다면 그저 가치를 잃은 쓰레기가 될 것인지 앞으로는 어떤 작업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하였다. 이번 작업은 잘 사라질 수 있는 물질을 만든다는 호기심과 한 개인의 행동하고자 하는 노력에 불과하다.



누구의것인가? / 8x18(cm) 3p / Mixed media / 2024

‘Mix·혼’ 광주시립미술관 청년예술인센터 오픈스튜디오



누구의것인가? / 8x18(cm) 3p / Mixed media / 2024



'Mix·혼' 광주시립미술관 청년예술인센터 오픈스튜디오

사라짐을 목적으로 작품을 제작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남게되는 잔재 또는 쓰레기를 통해 창조와 소멸사이에 놓인 아이러니를 경험하게 된다. 이는 사라지기를 바라는것이 도리어 잔여물(쓰레기)을 남기고만다는 현실과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욕망을 비춘다. 이러한 아이러니함을 육식과 연결하여 이야기하고자 한다. 육류의 형상을 띄고있는 이 작업은 알긴산나트륨으로 제작 되었으며 이 또한 잘 사라질 수 있는 재료를 이용하여 제작 하였다. 이러한 형태는 식재료의 흔적을 나타냄과 동시에 어디서 왔는지 어떠한 과정을 통해 우리의 식탁까지 오는지 자연에서 물질을 채취하여 인공적으로 가공하지만 결국 모든 것은 자연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있다.

‘누구의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이 지점들을 가리킨다.



귀리(乖離)2, Mixed Media(alginate gel, wire), 300X150(mm),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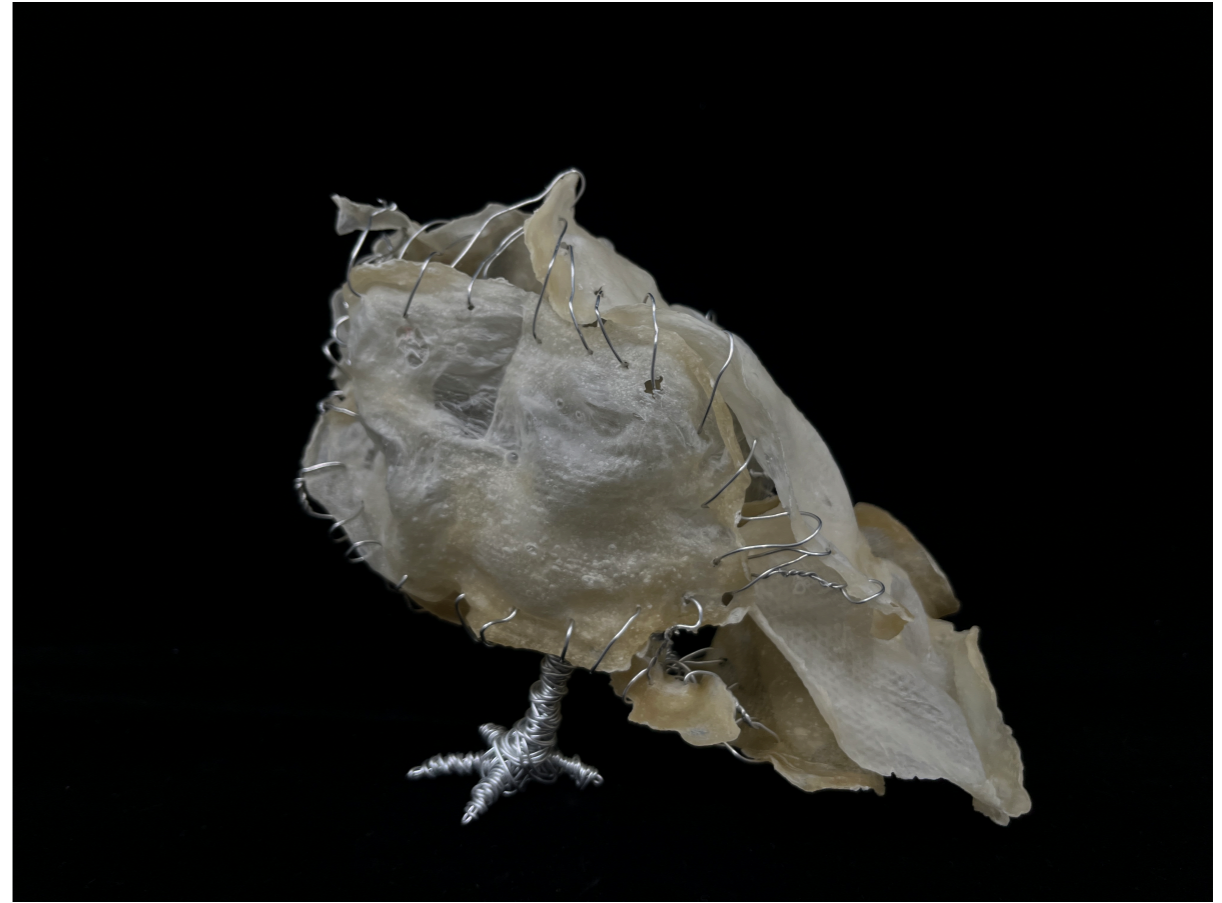
귀리(乖離)3, Mixed Media(alginate gel, wire), 300X100(mm), 2025

괴리(乖離)2, 3 작품에서는 알긴산나트륨과 철사를 함께 사용하였다. 유연하면서도 쉽게 소멸되는 물질과 단단하고 지속적인 재료를 병치 시킴으로써 이상과 현실, 욕망과 의도의 충돌을 드러내고자 했다. 특히 철사가 알긴산 조각을 꿰뚫거나 관통하는 방식은 단순히 연결을 위한 행위라기보다는 서로 다른 성질의 재료들이 충돌하면서 만들어내는 긴장을 시각화하는 장치로 작용한다.

이 작업은 결국 사라짐을 지향하면서도 남기려는 욕망이라는 상반된 태도의 흔적을 담고 있다. 친환경적 재료의 선택은 단순한 실험을 넘어 사라짐과 남음 사이에서 느낀 아이러니와 욕망을 드러내려는 시도이다.



머리 잃은 비둘기 / 150x100x250(cm) 12piece / Mixed media /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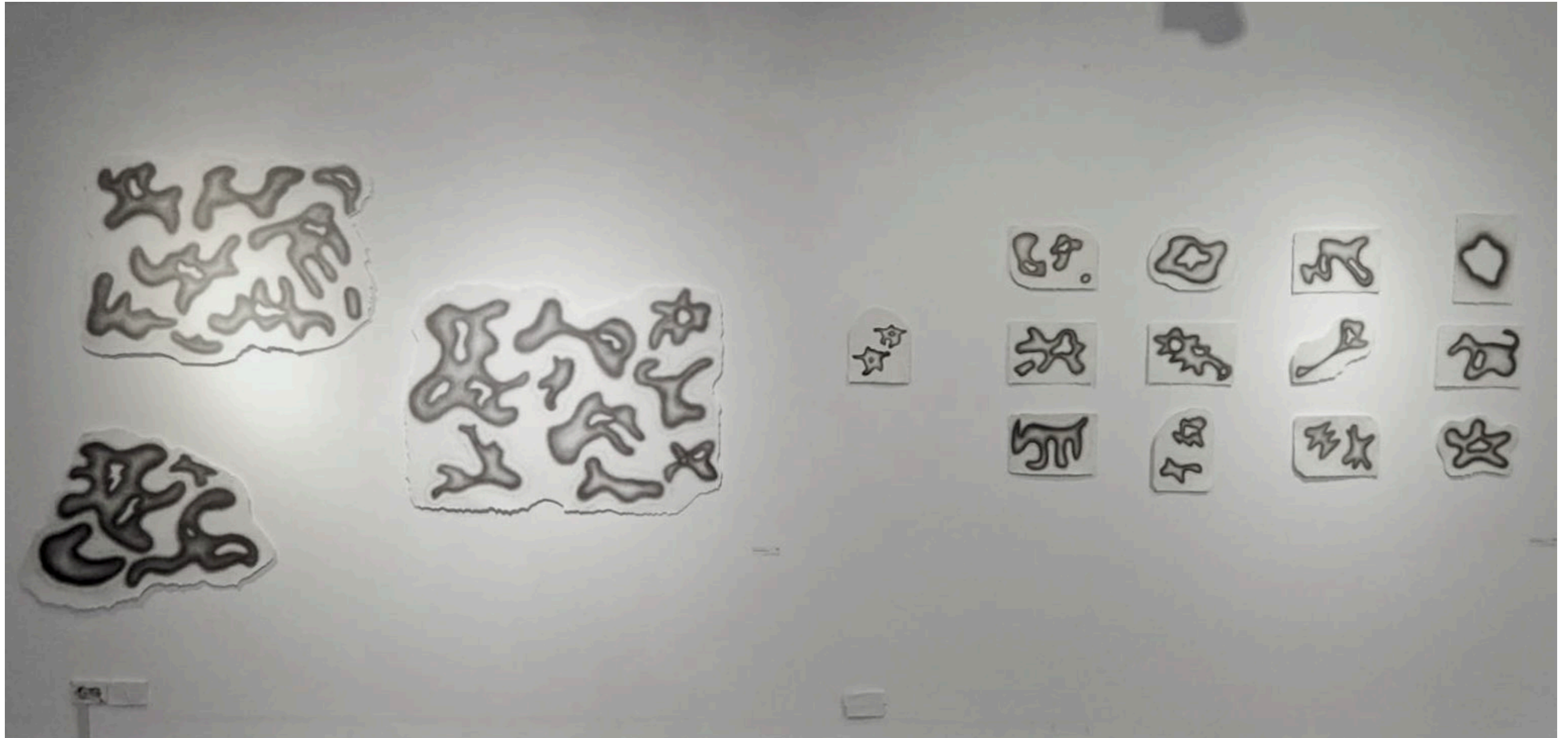


'Awakening Space' 양림동 청년창작소 별관

“머리 잃은 비둘기”라는 형상은 도시 속 비둘기의 위상을 은유한다. 과거 비둘기는 전령의 역할을 하며 인간과 가까이 지냈지만 오늘날에는 혐오와 배제의 대상이자 유해종으로 분류된다. 또한 원래 절벽의 바위 틈에서 살던 습성이 오늘날에는 아파트 외벽이나 고층 건물, 다리 밑으로 옮겨져 적응했다. 인간과 공존하며 살아남았지만 그 과정에서 날지 않거나 청력을 잃어가는 등 본래의 모습과는 다른 방식으로 변해왔다. 이는 단순히 본능을 상실한 것이라기보다는 인간 환경에 맞춰 진화인지 퇴화인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변화해 온 결과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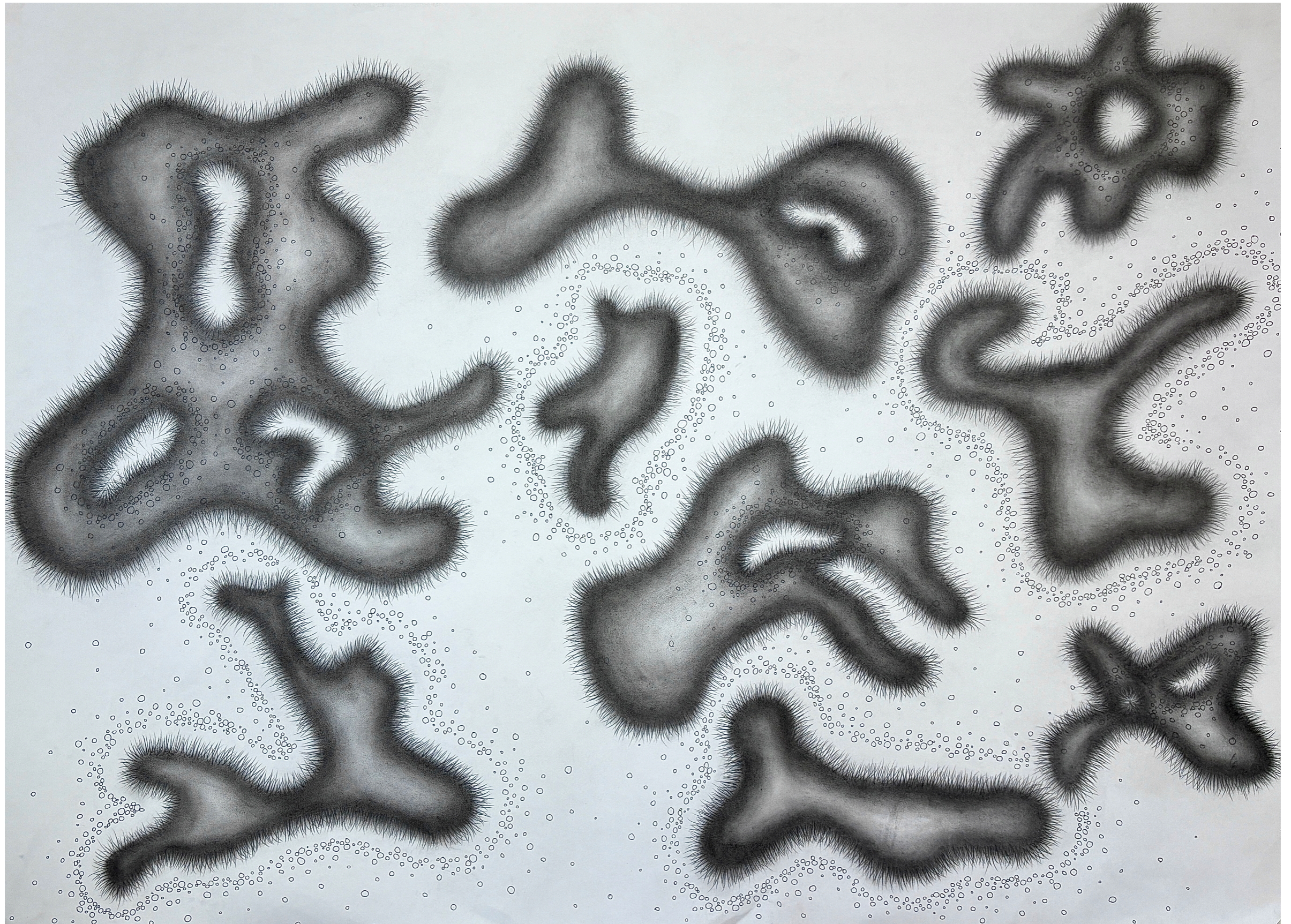
여기서 ‘잃다’라는 표현은 자의적 행위가 아니라 인간 활동과 환경적 요인에 의해 타의적으로 빼앗기거나 변화된 결과임을 의미한다.

이 작품은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행위들이 다른 존재들에게 어떤 흔적과 피해를 남기는지를 되묻는다. 동시에 작품의 핵심인 아이러니를 드러낸다. 친환경 재료를 사용하면서도 또 다른 잔재가 생겨나는 모순, 살아남았지만 배제되는 비둘기의 운명, 그리고 사라지기를 바라면서도 작품으로 남기고 싶어 하는 작가의 욕망이 서로 충돌하며 관객에게 깊은 성찰을 요구한다.



경계의 이미지 / 가변형 16piece / Mixed media(종이 위 목탄, 흑연) / 2025

‘전인적 : 아방가르드’ 은암 미술관



경계의 이미지 / 780 x 1090(cm) / Mixed media(종이 위 목탄, 흑연) / 2025

‘전인적 : 아방가르드’ 은암 미술관

이번 작업은 경계에 대한 시각적 탐구에서 출발한다. 이전 작업에서 사용한 알긴산나트륨은 쉽게 부서지고 사라지는 물성을 지닌 재료로 작품이 만들어지는 순간부터 사라짐을 전제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그 과정에서 나는 작업이 단순히 친환경적 실험을 넘어 결국 나 자신의 욕망과 아이러니를 드러낸다는 사실을 마주하게 되었다.

이번 드로잉 작업은 그 연장선에 있다. 목탄과 연필을 사용하여 남겨진 흔적, 번짐, 그리고 쉽게 지워질 수 있는 경계에 대한 탐구이다. 특히 목탄 가루와 짧은 선은 경계를 흐려지게 하며 보드라운 시각적 질감을 통해 포근한 감각으로 표현한다. 세포 이미지와 맞닿으며 언제든 변할 수 있는 유기적 형태를 드러내는데 이는 사라짐을 다루던 이전의 작업에서 한 걸음 나아가 존재가 고정되지 않고 끊임없이 흔들리고 변화하는 상태에 주목하는 시도이기도 하다. 불안정함과 포근한 감각이 공존하는 이번 드로잉 과정은 단순히 재료적 실험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남기고 지우려 하는가, 그리고 그 사이에서 드러나는 모순과 가능성을 성찰하는 작업으로 이어진다.

## ■EDUCATION

2022.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전공 학사 졸업

## ■EXHIBITION

2025.

- '전인적 : 아방가르드' / 은암미술관
- '조대의 미술, 내일을 그리다' / 김보현&실비아올드 미술관
- 'Awakening Space : 일상을 깨우는 공간' 양림동/ 청년창작소 별관
- '한다, 하지 않는다, 한다.' / 전일빌딩 245 8층

2024.

- '아무 생각 있음,없음' 광주시립미술관 청년예술인센터 결과보고전 /광주시립미술관 청년 예술센터
- 'Mix·혼' 광주시립미술관 청년예술센터 입주예술인전 /광주시립미술관 청년예술센터
- '어떤 사건의 시작' 6인 단체전 /조선대학교 미술관

2023.

- '편치기계의 자연사' PEER-UP! 교류전시 /반도전자상가

2022.

- '생존도구' 개인전 /김대중컨벤션센터 화해갤러리

2021.

- 'NEW VIBE'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회화학과 서양화전공 졸업 작품전 /조선대학교미술관, 갤러리 산(山)
- 'X로부터 나를 지켜내는 방법' 미로마켓 ON&OFF /전일빌딩245 3층 시민갤러리

## ■RESIDENCY

2024. 광주시립미술관 청년예술인센터 레지던시 /광주광역시

## ■AWARDS

2022.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회화상 수상

010.9152.2941  
[qlqj0410@naver.com](mailto:qlqj0410@naver.com)  
Insta @m1n\_9yun9\_9

